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8월 4일(금)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김승록 장로)는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 순례,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일반장학금 및 순례장학금은 교회내 대학생, 광림장학금은 호산나대학생 및 강남구 관내 대학생으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송암장학금은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브리스길라장학금은 신학생이 대상입니다.

광림장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등록된 지 1

년 이상이며,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청년부 출석하고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대학생을 선발 조건으로 한다. 또한,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부 및 봉사부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8월 4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7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모집

1.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여름 학기: 7. 8일(토)-9. 10(주일), 10주

3.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원) /교회지원 45,000원

※ 단, 교회지원은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한정하며 1인이 2개 클래스 이상 신청 시, 교회지원은 1개 클래스만 적용됩니다.

※ 교회지원금은 이번 학기까지만 적용됩니다.

4.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5. 구글 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한도연 선생
드럼	토	11:00-	10주	601	최명아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박재현 배우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토 12:00-(120분)	5주	701	송재월 권사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구)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 교회 에너지 절약 및 청결

흑서기에 들어서며 주일에 교회 전체 냉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서에서 개별 냉방기를 켜두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실 시 부서별 냉방기와 전등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에너지(자원) 절약을 위해 실천할 사항으로 냉방기 가동 시 출입문 닫기, 엘리베이터 타기보다 계단 걷기, 전기 절약을 위해 전등 하나 끄기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홀)에서만 음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물 섭취는 꼭 8층 만나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절약운동과 청결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교회환경과 하나뿐인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8월

##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8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8월 첫 번째 토요일인 8월 5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부교역자 여름 휴가 계획

성명	기간	대행
장석남 목사	8/21(월)-26(토)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7/31(월)-8/5(토)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8/7(월)-12(토)	장석남 목사
현종필 목사	7/31(월)-8/5(토)	
박미라 전도사	8/9(수)-12(토) 8/16(수)-17(목)	

## 2023년 3/4분기 추가 섬김 위원

- 임마누엘 : 소프라노 황금선 유미영
- 수요일부 안내 : 박혜정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김예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일 4:7-12)



손달익 위임목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아가서 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진 세월이 지나가고 험한 일도 다 그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향해 다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6)는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삶의 절정의

헌신을 향해 함께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 거인들에게도 늘 절정으로 헌신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세리 마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절정의 삶을 향한 출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청년이었던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주 말했습니다(요 13:23, 21:7, 20). 주님께서도 그를 특별히 아끼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그 모친 마리아를 모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 사도 요한은 성경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전도의 일선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으로서는 그때가 절정의 헌신을 향한 새 출발의 시기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신앙의 최고점에 관해 교훈하면서 그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1. 에베소교회에 주는 교훈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애절한 사도의 음성은 에베소교회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때 에베소교회에 거짓 선지자 곧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괴롭힌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이단으로 율법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율법주의자이고 또 하나는 헬라적 이단으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에베소교회를 괴롭힌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대처하고 배척하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계 2:2)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단을 구분하고 배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고 하시면서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에베소교회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헌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긴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의 시기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고,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며 1세기 말 마지막 남은 최후

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는 신앙의 최고점, 영적 절정의 경지, 곧 사랑으로 가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모든 헌신과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 2.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사도 요한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최고의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농익은 사랑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한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과격하고 혈기가 넘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최고점을 향해 가면서 사랑의 사도로 성숙해 갔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기 스스로를 단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기록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가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 3. 진정한 승리를 위한 출발

1세기의 교회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눈물겨운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룩한 투쟁의 승리는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11-12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몇 시간 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기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참혹한 종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리의 의미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신앙과 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승리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오직 믿음과 선행의 실천으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로마제국을 점령했지만 중세의 교회는 수십만 병력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인류 역사에 크나큰 오점만 남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 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 사랑의 감화력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 넘겨져도 이웃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총이 넘쳐난다면 그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걷는 것이 승리이며 영광입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최고점입니다



## 놀라운 선물



송미령 권사  
(교구)

시작은 단순했어요. 기초연기를 배워서 '이야기 할머니' 면접 때 써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초연기반에 등록했습니다.

첫째 날, 스스럼 없이 자신을 내보이는 선생님 덕분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의 인생'을 짧게 써 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나의 인생'을 독백하는데 두려움, 원망, 부끄러움, 기쁨... 그리고 감사 감사. 삶의 한 단원이 정리된 듯한 후련함. 이제까지 여러 모양으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으로 '기초연기를 준비하셨

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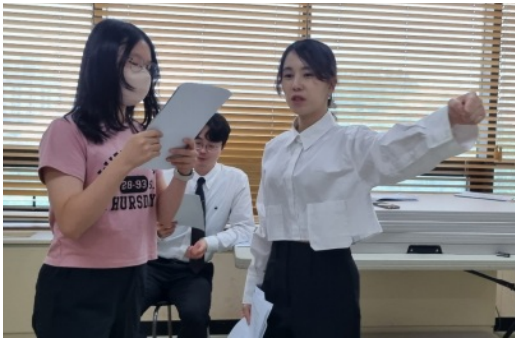
수업은 '일주일 동안 인상 깊었던 일 나누기' - '몸풀기' - '연기의 기본 요소 배우기'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몸풀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막대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이 뻣뻣한 제가,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머뭇거리자 '양 손바닥에 보이지 않는 쟁반을 하나씩 얹고 쟁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이제 무거운 쟁반입니다', '작고 가벼운 쟁반이에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며 움직이자 어느새 음악을 따라 춤추고(?) 있었습니다.

몸풀기 주제는 다양합니다. 몸으로 곡선, 직선, 진동 표현하기, 상대의 동작과 표정 따라하기, 상대방과 교대로 몸짓 이어가기... 몸풀기를 하다보면 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간혀 있던 마음까지 짜악 퍼지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의 몸짓 따라 하기를 할 때, 처음엔 따라 하느라 바빴는데 어느 순간 상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몸과 마음으로 상황극을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전혀 하지않던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기는 나를 넓혀가는 작업입니다. 수업의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기로 이어지도록 이끄시는 박재현 선생님을 감탄합니다.

10주 수업이 너무 짧아 아쉬웠는데 여름학기도 열어주시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멋진 '기초연기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현 배우에게 연기 지도를 받고 있는 말샘(말씀 안에 성장성극) 학생들



## 나를 찾아가는 "힐링연기" 클래스를 마치며

### 한울

연기를 기초부터 배워보고 싶어 이 수업을 듣기 전, 타 기관의 기초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교회에서 하는 연기클래스를 접하게 되었고 수업을 마쳐가는 지금, 매우 만족함을 느낍니다.

연기를 배운다고 할 때 걱정되었던 부분은 배우를 상품화하거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원

하는 형태의 연기를 배우며 애초에 연기를 배우려 했던 이유와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배우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낯선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기를 끌어내어 배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연기 클래스 안에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기는 배우가 삶의 한부분을 꺼내 관객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가 이야기와 연기로 꺼낸 삶에는 당연스레

하나님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며 삶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또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짐을 느끼며 역시 연기란 멋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계기였습니다. 매년 멋진 수업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해 주신 재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박미옥 성도  
(4교구)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클래식기타를 처음 접하고 그 음색이 너무 좋아서 잠깐 배우기 시작했다가 긴 손가락이 유리하단 말에 한번 실망하고, 제 의지박약이 더해져 포기하고, 그저 남은 악기를 어찌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어온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일반 통기타와 달리 클래식기타 레슨은 접하기 어려웠는데 장윤식 안수집사님 클래스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가 없기도 했었고 또 놓고 있는 기타를 다시 쳐본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는데, 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선에 검은 콩나물만 봐도 어지러운 상황에 지루하지 않게 쉽게 접근하도록 알려주셔서 그나마 수업을 따라간 거 같습니다.

또 기타를 잘 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바흐'곡을 치시는데 잠깐 스쳐들다가 '너무 좋아서 언젠가 나도 저 곡을 꼭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그 곡은 어느 한 분의 독주곡이 아니라 저도 배울수 있는 합주곡이었고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 갈 그 과정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러서 적어도 흥미만 잃지 않기를 바라며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에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를 해주신 장윤식 안수집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클래식기타반(위) 통기타 주일반 연습장면(아래)

## 드럼의 리듬감을 익히며



유성결 성도  
(청년부)

저는 4월 22일부터 교회에서 드럼을 배워왔습니다.

드럼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수련회마다 신나는 찬양을 부를 때 드럼 소리의 리듬감이 좋았고 다른 악기들 보다 드럼 소리가 큰 느낌도 들어서 '드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교회에서 드럼수업을 한다는 소리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드럼 첫 수업을 들었는데 준비물을 못 가져와 처음부터 준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업부터는 준비물을 챙겨서 연습용 드럼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럼 수업을 들으면서도 드럼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기는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드럼 수업을 들을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즐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자국 따라

조한나 권사(시인, 3교구)

주님 가신 발자국  
마른 길 외면 하시고  
젖은 길 골라 밟으시는  
오 크신 분

당신의 행보 동행하며  
구름 그늘 아래 잠시 쉬어 갑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기를  
웃심으로 훔치면서 따라 갑니다

어떤 이는 고행  
어떤 이는 구도  
또 어떤 이는 형극의 길이라고도 하지만

따라 걸을수록 빛으로 열리고  
생명 길로 갑니다

〈기독교문학〉 31집에서



## 기독교의 큰 공적, 구라선교(2) - 여수 애양원



광주 나병원



초기 애양원



애양원 정문에서 손양원 목사

봉선리에 위치한 광주의 나병원은 도심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 실제로 도심까지의 거리는 2km가 채 되지 않았다. 광주 나병원을 설립한 윌슨이 민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한센병 환자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병원을 위치시켰기 때문이었다. 또 환자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광주 나병원은 한센인이 매우 선호하는 병원이었다. 따라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넘쳐나 양림리(현재의 양림동)를 중심으로 환자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센병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가지고 있던 광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다. 거기에 나병원과 환자 마을이 광주를 관통하는 광주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물의 오염을 우려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나병원의 이전을 촉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민원을 받아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 정식으로 병원 이전을 요청했다. 총독부는 병원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병원 등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결국 병원의 존속을 위해 이전이 결정되었다. 이전 장소는 여수 율촌면 신흥반도 일대였다.

1926년부터 환자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입원환자 681명은 그룹을 나누어 이동했다. 광주 나병원에서 이전 장소까지는 약 137km였다. 상당히 먼 거리지만 당연히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낮에는 주민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어 산속에서 잠을 자고 밤에 이동했다. 환자들의 이동은 1928년에 가셔야 완료되었다.

처음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기술인력이었다. 광주 나병원은 적어도 1919년부터 환자에 대한 목공과 석공 교육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26년 11월 목수 20명, 미장공 20명, 함석공

10명과 기타 기능공으로 이루어진 환자 110명을 애양원 건설을 위한 기술인력 선발대로 보낼 수 있었다. 1928년 윌슨의 보고서를 보면 석조 병사 33개, 본부 건물, 축사 1개, 곳간 2개, 우물 22개, 돌다리 16개, 도로 2.5마일이 환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곧 병원과 교회를 세울 계획이었다.

애양원에서 환자들의 공동체는 더욱 발전하였다. 언제 환자 자치조직이 생겼는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928년 환자 총회를 통해 이듬해의 위원회를 선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윌슨은 11개의 부서의 부장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자치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11개의 부서는 치안·가게·서무·재무·위생·교육·목축·농업·일용직 노동자·목수·석공이었다. 그리고 부서별로 2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해 집행위원회(다른 말로 부장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환자 자치조직이 성장하면서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광주 나병원에서는 병원장, 교회, 환자 자치조직이 긴밀히 협력했다면 이제는 교회와 자치조직이 환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대립을 벌이게 된 것이다. 1929년 11월 애양원교회에 부임한 김응규 목사는 부장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다가 부장회와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켰다. 김응규 목사는 애양원교회의 첫 한국인 목사였는데 애양원 내부로 출입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소독하였고, 예배당 안에도 목회자 자리를 유리로 막아 환자와 분리하였다.

그는 치리권을 갖고 환자들을 통제하여 내부 규율을 세우려 했다. 이는 당장 보급품 분배 권한을 독점하면서 파벌을 형성하던 부장회의 불만을 야기했다. 결국 1934년에는 불만을 품은 일부 환자들이 교회에 불을 질러 교회

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고, 1938년 9월부터는 김응규 목사의 퇴진 운동이 벌어졌다. 퇴진 운동의 표면적인 이유는 김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오래된 갈등이 폭발한 것이었다. 결국 김응규 목사는 신사참배를 한 친일인사로 몰려 사임하였다. 윌슨은 새로운 담임목사로 신사참배에 결사반대했던 손양원 목사를 초빙했다.

손양원 목사는 1935년에 부흥회 강사로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예배당 안에 환자와 목사의 공간이 유리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환자 구역으로 들어가 부흥회를 인도했다. 이는 환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가 애양원에 부임하는 것을 반겼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자 환자들을 격의없이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임한 이후에도 손양원 목사는 환자들이 기거하는 방을 자주 출입하고 그들의 얼굴이나 손을 만지며 기도 및 상담을 했다. 손양원 목사와 환자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손양원 목사 부임 이후 애양원교회는 질병치유에 목적을 둔 '질병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중시하는 '신앙공동체'로 급속히 그 성격을 바꾸어갔다. 그 결과 1940년 9월 손양원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 혐의로 기소되어 애양원교회를 떠나게 된 이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신사참배 반대를 고수하며 신앙을 지켰다. 애양원에서 쫓겨나 치료를 받지 못해도,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해도 환자들은 감옥에 있는 손양원 목사를 기억하며 절개를 꺾지 않았다. 부드러운 사랑이 만들어낸 굳은 신앙이었다.



애양원 신흥교회 사택 앞에서 가족과 함께 한 손양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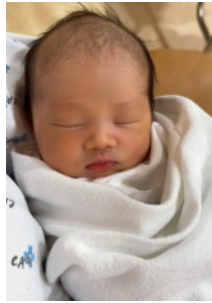
애양원 신흥교회 예배 모습



손양원 목사 담임시절 애양원 신흥교회



**특남**



- 1교구 양세현 집사·김나윤 집사 가정  
특남. 7월 23일(주일) 양승주 아기  
(1교구 양춘경 장로·이인숙 권사 손자)

**식사 제공**

- 4교구 박원정 성도·박혜성 박석원 박진원  
(모친 고 김초일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7월 전도**



7월 22일 토요일노방 전도 (이삭선교회)



7월 26일 수요일노방 전도 (리브가전도회)

\* 8월 흑서기를 맞아 70인전도대의 노방전도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7월31일	월	사 18-22	
8월1일	화	사 23-27	
8월2일	수	사 28-32	
8월3일	목	사 33-36	
8월4일	금	사 37-40	
8월5일	토	사 41-43	
8월6일	주일	사 44-47	

이름: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7월31일	월	신 1-7	
8월1일	화	신 8-14	
8월2일	수	신 15-22	
8월3일	목	신 23-29	
8월4일	금	신 30-34	
8월5일	토	수 1-8	
8월6일	주일	수 9-1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여름 무더위를 몸과 마음이 평안과 강건함 가운데 이겨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서울교회 한마음축제를 통해 경험케 하신 천국 백성의 교제의 기쁨이 일상의 삶과 거룩한 섬김과 예배로 이어지게 하소서.
3. 수해와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